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5
WINTER



Care & Love

故장기려 박사 · 초대병원장

원고모집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환우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병원 소식지에 실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분량 : A4 2~3매의 원고

○ 사연 보내실 곳 : pr3700@daum.net 또는 고객지원센터(3동1층)

독자 QUIZ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원보에 모든 정답이 있는 답이 보이는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응답기간 : 2026년 3월 5일(목)까지

추첨결과 : 2026년 3월 중



지금 바로 카메라를 열어
Quiz 정답을 남겨주세요

독자퀴즈 바로가기



Contents

Kosin Spirit

- 04 CEO의 편지 최종순·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 06 한 사람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 08 아프리카를 떠나며… 최영일 교수·간담도체장외과·이식외과

Medical Es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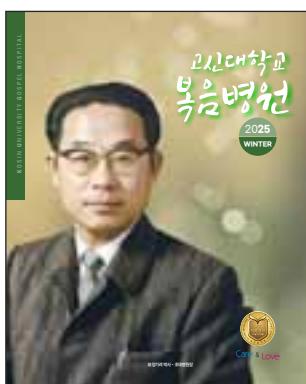
- 12 호르몬의 파도 속에서 균형 잡기 김은택 교수·산부인과
- 15 면역이 친구가 될 때 신호식 교수·신장내과

Culture & Life

- 18 미국에서 온 편지 #6 김지연 교수·정형외과
- 22 병원이 키운 태양, 빛을 꿈꾸다 견태양
- 25 운명적 끌림 김희자·수필작가
- 28 겨울산은 멀지 않다…강원도 정선 민동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Kosin Inside

- 32 다섯 번째 우.부.소 - 김기 주임·시설과
- 36 장무상망 홍광표 대표실장·진료지원부
- 39 원목실 추천도서
- 40 포커스뷰
- 44 칭찬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 46 우리 병원 친절직원
- 47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 48 + KOSin 사랑in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 50 진료시간표



2025. WINTER

발행인 최종순 | 발행일 2025년 12월 | 편집인 이형석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홍보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 051)990-3700~2 |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 051)464-5667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홍보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CEO의 편지

글 | 최종순 ·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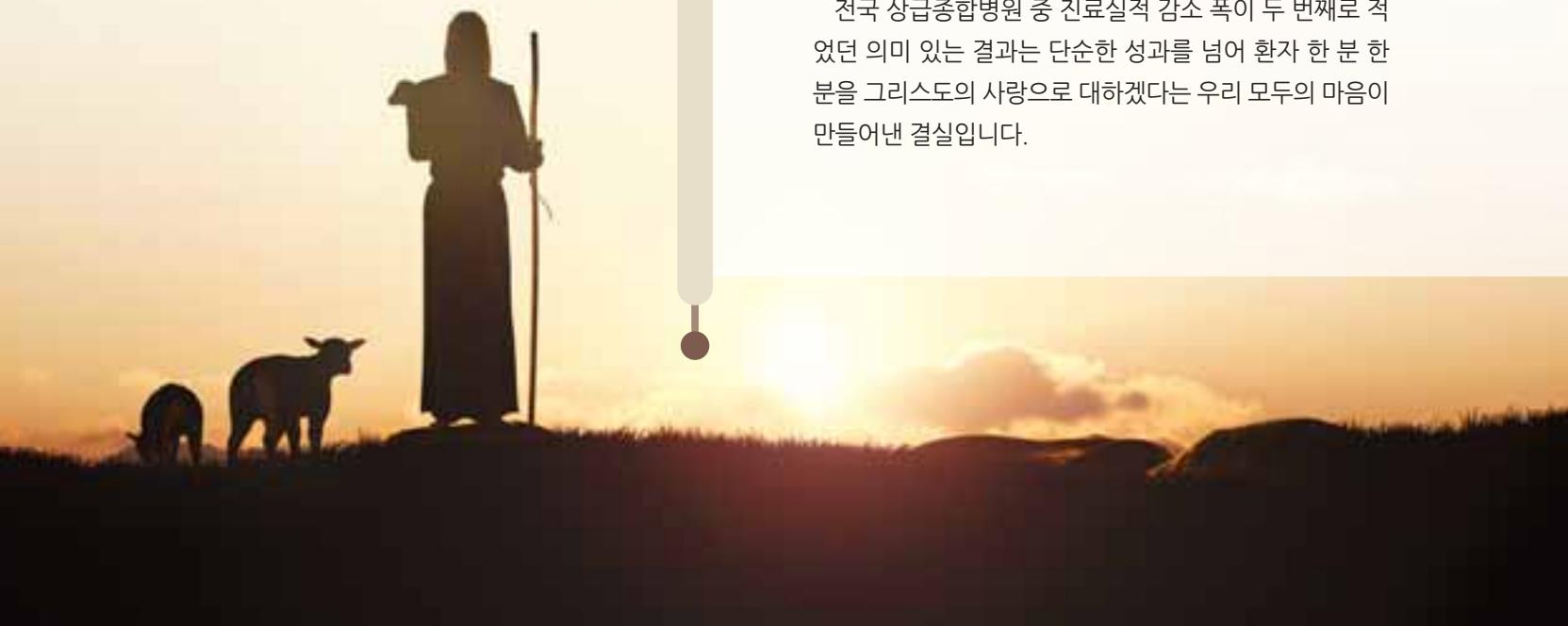
사랑하는 복음병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환우와 내원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최종순입니다.

올해는 우리 병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시는 고(故) 장기려 박사님의 소천 30주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이 전쟁 직후 부산 영도에 세우신 작은 천막 병원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던 한 의료인의 '숭고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한 환자를 위해 자신의 월급을 내어놓고,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드셨던 박사님의 삶은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사님이 머물던 소박한 옥탑방이 지금도 우리 병원에 남아있는 것은 그 정신이 우리 복음병원의 변치 않는 기초임을 일깨워 줍니다.

최근 전국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병원이 흔들리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의 '사랑의 유산'이 우리 안에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진료실적 감소 폭이 두 번째로 적었던 의미 있는 결과는 단순한 성과를 넘어 환자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천막에서 시작한 복음병원의 사명은 시대가 달라져도 변치 않아야 할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을 환자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복음병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을 다한 치료, 그리고 행정의 작은 배려까지도 모두 그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병원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 ‘희망과 위로가 자라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병원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가야 할 길입니다.

박사님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계속 숨 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병원을 신뢰하고 찾아주시는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깊은 곳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 복음병원은 ‘믿음직한 진료, 마음을 다한 치유’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맡기실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성과 윤리를 갖춘 믿음직한 진료**를 이어가며.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는 **사랑과 헌신으로 마음을 다한 치유**를 실천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우리 복음병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여러분 곁을 더욱 든든하고 따뜻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장 **최 총 순** 드림



한 사람

글 |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같은 민족,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환경이지만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K-Culture의 중심에 있고 젊은이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누가 통치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삶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분명한 소명은 삶의 목적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변화는 시대적 소명을 자각한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은 그 업적 때문이 아니라 살아낸 방식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의 친절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 사람의 용기는 좌절한 사람들을 일으키며 한 사람의 선택은 공동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역사는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버틴 시간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한 시대를 비추는 거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언제나 한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병원의 역사에는 한 사람의 용기와 눈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지 30년이 되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를 복음병원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시절에 세워진 무료 병원,

환자의 전인에 중심 된 치료 병원,

가난한 자도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보험,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소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산 장기려 박사님의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이끌었던 중심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이끌었던 근본 동기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자기 정체성은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The Son of God became a man to enable men to become better Sons of God” 하나님
의 아들이 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이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 아들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인간성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오직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은 우리가 아직 범죄하고 원수 되었을 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인간이 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관심과 초점
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의 아픔과 상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희
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된 삶입니다.

복음병원 곳곳에 남은 장기려 박사님의 흔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목표로 하십니까?”

진정한 신앙과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려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번민을 반복하는 인간의 마음에 좌정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 나가는 복음병원이 됩시다.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장기려 박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시다. 



아프리카를 떠나며

글 | 최영일 교수 · 간담도췌장외과·이식외과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Liver Day)'이다. 대한간학회가 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지만, 필자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바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초대 원장님이신 장기려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량 간절제술을 시행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장기려 박사님을 떠올리며, 지난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에스와티니에서의 의료봉사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그곳에서 만난 환자들의 눈빛과 절박한 마음은 깊은 울림을 주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여행 준비

아프리카를 떠나 집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본다. 이번 여정은 전혀 계획에 없던 여행이었다. 금요일 아침마다 있는 외과 컨퍼런스 시간에 우연히 어느 교수님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의료 선교를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순간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인 두 아이들을 데리고 열흘 정도 집을 비우면, 막내 육아에 지친 아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한때는 여행을 취소 하려고도 했다. 왜냐하면 미국 연수를 다녀온 지 고작 1년 반 밖에 지나지 않았고, 집에는 걸음마를 시작한 18개월 된 막내 딸이 있어 어린 아이와 아내를 두고 집을 비우는 것이 더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나는 두 아이들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다녀오기로 했다.

준비되지 않았던 마음

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위해 매년 해외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그저 연례 행사나 형식적인 봉사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봉사는 병력을 청취하고 준비해 간 약을 나누어주는 정도의 간단한 1차 진료 정도일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의과대학생 시절에 열심히 준비하고 쫓아 다녔던 CCC 의료 봉사는 보통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진료가 과연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진료 환경에서 간담회외과 의사가 된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환자들을 줄 세우는 일' 정도일 것이라 생각해 왔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여행에 참여했으니,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실 나는 그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을 보고 좀 더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아, 에스와티니

말레이시아에서의 한인 교회 진료,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인 진료,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한인 교회 진료를 마친 후, 월요일 아침 일찍 에스와티니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여행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에스와티니"라는 나라 이름을 들었는데 그곳에서 혈액 투석 환자를 위한 동정맥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동정맥루 수술을 5년 넘게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외과 의사로 산 세월이 20년이 넘었으니, 간단한 수술 정도는 무리 없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 했다.

오후 2시가 넘어 국경을 통과했고, 나를 포함한 수술을 맡을 의료진 몇 명은 현지에서 우리의 의사 면허증 발급과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신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 교수님의 차를 타고 음바바네 정부병원으로 향했다.

현지 외과 의사가 미리 리스트업 해둔 환자들을 만나서 이를 간 수술할 환자를 정해야 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준비를 해 주신 교수님과 현지인 외과의사는 많이 조마조마 했을 것이다.

한 쪽 방에서는 유방 수술과 갑상선 수술을 위한 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졌고 나는 또 다른 진료실에서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과 혈액 투석 환자들 15명 가량을 만났다. 이전의 동정맥루 수술 후 혈관이 막혔거나 인조 혈관이 필요하거나 동정맥루 수술을 위한 적당한 혈관이 보이지 않는 환자 등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 이 병원은 우리나라처럼 늦게까지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미리 들었기 때문에 하루 3~4명씩, 이를 동안 총 7명 정도만 수술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내가 만난 환자들의 눈빛은 절박했고, 선택 받지 못한 이들의 표정에서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볼 수 있었다.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동정맥루 수술

나는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을 외과 의사로 살았지만, 여전히 수술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 음바바네 정부병원에서 보낸 이틀이 바로 그랬다.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수술은 혈관을 정확히 연결해 주어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수술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몇몇 환자들은 그 결과도 기대만큼 좋지 않았다. 환자들에게는 "오늘은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 날 우리를 도와 주었던 현지 외과의사와 수술 과정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환자들은 결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전원 해야만 한다고 들었다. 과연 그들 중 몇 명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갈 수 있을까. 환자들이 절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다.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병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간이식팀은 약 80례 정도의 간이식을 시행했다. 그중 절반은 뇌사자 간이식이었고, 그 환자의 3분의 2가량은 알코올과 관련된 환자들이었다. 죽음 직전에 이른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 희박한 확률로 간이식을 받게 되지만, 이 환자들을 위한 치료는 단순히 수술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들은 수술 이후에도 술을 멀리하기 위한 노력과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수술 이후에 더 많은 관리와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그것이 복음병원과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복음병원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환자들을 돌봐왔다. 에스와티니에서 만난 환자들처럼 절박한 이들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복음병원에서 이루어지던 뇌사자 간이식은 지난 2년 동안 완전히 멈추고 말았다.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소망조차 없는 환자들을 그 시간 동안 돌보지 못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에스와티니에서 만난 절박한 환자들을 떠올리며, 간이식이 필요한 소외된 환자들에게 다시 복음병원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프리카를 떠나며

2024년 2월,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 가족은 많이 울었다. 함께 했던 미국 교회의 형제들과, 그리고 미국에 남은 가족들과의 이별이 아쉽고 슬펐기 때문이다.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아이가 말했다.

“아빠,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

나는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별이 슬픈 거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물은,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증거란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떠나 오며 비슷한 감정이 밀려왔다. 남몰래 눈물이 흐른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그와 같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빛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다시 빛을 지고 말았다. 아프리카에 사랑의 빛을 지고 말았다

장기려 박사님의 추모 30주기를 맞아 다시 다짐한다. 사랑으로 사람을 잊는 의사가 되겠노라고. 



최영일 교수 | 간담도췌장외과·이식외과

전문진료분야 | 간이식, 간담도, 혈관,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간담췌클리닉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호르몬의 파도 속에서 균형 잡기 – 폐경기 여성 건강관리

글 | 김은택 교수 • 산부인과



폐경 이행기의 정의와 변화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폐경 이행기(perimenopause)'는 월경이 완전히 멈추기 전,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대체로 46세에서 51세 사이에 시작되며 약 2~5년 정도 지속됩니다.

이 시기에는 난포자극호르몬(FSH)의 비가역적인 상승과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안면홍조나 발한(땀 분비 증가), 불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분 변화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개인마다 정도가 다르지만, 신체가 호르몬의 균형을 새롭게 맞춰가는 '전환기'라는 점에서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노년기의 건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경 이행기 여성에게 필요한 검진과 예방 관리



폐경 전후에는 여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배뇨장애**, **질건조증** 등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시행을 권장하는 검사로는 **부인과 초음파**, **자궁경부암 검사**, **유방검진**, **골밀도 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골밀도 검사는 폐경 이행기 이후 필수적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골흡수가 빨라져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뇨장애나 방광염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단순한 비뇨기 질환이 아니라 **호르몬 저하로 인한 요도·질 위축**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생제보다는 **여성호르몬 국소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폐경 이행기 검진은 단순히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급성 폐경 이행기 증상을 조기에 조절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당뇨·고지혈증·암** 등을 예방하기 위한 **단기적 관리와 장기적 건강 설계**가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호르몬적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



폐경기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개인 사정상 **호르몬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호르몬 치료법**으로도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CBT), 명상, 요가, 심호흡 훈련 등이 안면홍조나 불면, 불안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비호르몬 치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며 대표적인 혈관운동증상에 대한 임상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절주**, **금연**,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은 체중 증가를 막고 골밀도를 유지하며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특히 여러 요인 중 체중 감량은 혈관운동증상 감소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4.5kg 이상 감량한 경우 1년 후 혈관운동증상의 소멸률을 23% 더 많이 경험했으며,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한 경우 56%에서 증상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지나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혈관 확장을 유발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르몬 치료의 적절한 활용



폐경 증후군이 심한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HRT, Hormone Replacement Therapy)**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월경 후 10년 이내, 60세 미만의 여성에서 시작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반면, 60세 이상이거나 폐경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치매·뇌혈관 질**

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경구제, 패치, 젤, 질정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며, 증상의 정도와 건강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방암, 혈전증, 간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이며, 치료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상담과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 후 60세까지 약 10년간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만, 적절한 투여 기간이나 중단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아직 부족합니다.

따라서 치료 중에는 매년 **유방촬영 및 초음파, 자궁경부암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며, 환자의 상태·호르몬 수치·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폐경 이행기는 단순히 월경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여성의 삶의 질이 새롭게 설계되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안면홍조나 수면장애, 성교통, 배뇨 불편감을 “참을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는 개인의 위험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제와 검사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경 이행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그 과정을 건강하게 지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춘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호르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김은택 교수 | 산부인과

전문진료분야 | 부인질환(심부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탈출증), 부인종양, 부인암,
부인암 유전상담, 폐경, 로봇수술, 내시경수술(부인암 분과전문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면역이 친구가 될 때 우리 몸이 이식된 장기를 받아들이는 법

글 | 신호식 교수 · 신장내과



생명을 잊는 과학, 장기이식의 기적

누군가의 생명이 꺼져 가는 순간, 또 다른 사람의 손길로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바로 '장기이식'입니다. 신장, 간, 심장, 폐 등 한 사람의 장기가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식된 장기는 처음엔 날선 손님처럼 우리 몸 안에서 '면역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환자들은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약은 감염이나 암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면역을 억누르지 않고, 친구로 만드는 법', 즉 '면역관용(immune tolerance)'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면역이 친구가 되는 순간 – 관용의 과학

우리의 면역은 매우 정교한 방어 체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강하면, 이식된 장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면역관용'은 이 면역이 "싸움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면역관용과 조절T세포(Regulatory T cell, Treg)의 발견과 응용' 연구에 수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인간의 면역계가 어떻게 스스로 공격을 멈추고 관용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규명했으며, 장기이식·자가면역질환·암 면역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조절T세포는 과도한 면역반응을 억제하고, 이식된 장기나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발견은 '면역이 친구가 되는 순간'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준 혁명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고신의대 장기이식연구소 세미나에서도 이 주제가 핵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하버드의대 최용준 교수는 "HLA-

E 제한 조절 CD8 T세포”가 관용 유도의 새로운 열쇠임을 소개했고, 워싱턴대 나오카 무라카미 교수는 CAR-T 치료법을 장기 이식에 응용하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연구자들은 ‘면역세포 간의 대화’를 조절하여, 장기와 몸이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논문들은 다음과 같은 희망을 보여줍니다.

- 조절T세포(Treg)를 이용한 관용 유도 치료가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
- 기증자 유래 DNA 모니터링으로 이식 후 거부반응 조기 감지
- 인공지능 기반 예측 알고리즘으로 면역억제제 용량을 개인 맞춤으로 조절

이 모든 연구의 목적은 단 하나 – “이식받은 장기가 오래 살아남고, 환자가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신의대 장기이식연구소 – 생명과 신앙을 잇는 다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장기이식연구소(2020년 개소, 소장 신호식 교수)는 신앙과 의학이 만나는 자리에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생명의 존중’을 추구합니다.

연구소는 29차례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후에 2025년 9월 20일 대한이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면역관용과 이식의 미래’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장기이식연구소는 조절T세포(Treg)를 이용한 면역관용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장기이식 환자에서 면역억제제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소는 하버드 의대, 워싱턴대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며 ‘면역이 조화를 이루는 이식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그 생명을 섬기는 청지기’라는 믿음에 기초한 실천입니다. 의학적 탁월함과 신앙적 책임이 함께 갈 때, 장기이식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닌 사랑의 연장선이 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면역의 평화’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5)라고 말씀합니다. 면역관용은 ‘온유한 면역’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강하게 싸우는 대신, 조화와 평화를 택할 때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식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약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장기 기증과 이식의 정신은 바로 이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 연구와 신앙의 연대

오늘날 장기이식의 성공률은 과학 덕분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식의 성공’은 기술을 넘어, 마음의 변화와 공동체의 참여 속에서 완성됩니다. 고신의대 장기이식연구소는 환자, 기증자, 의료진, 교회가 함께 “생명과 믿음의 순환”을 이루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하는 일은 단지 실험실의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과학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결론 – 면역이 친구가 될 때

면역이 싸움을 멈추고 친구가 되는 순간, 이식된 장기와 몸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발전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면역이 친구가 될 때, 우리의 몸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고신의대 장기이식연구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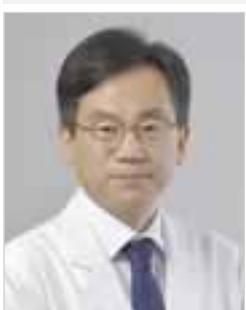
https://www.kucm.ac.kr/transplantation_index.php



2025년 제1회 고신의대 장기이식연구소, 대한이식학회 공동 심포지엄 영상▶

신호식 교수 | 신장내과

- 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신장내과 교수
- 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장기이식연구소 소장
- 현, 대한신장학회 투석이사
- 현, 대한신장학회 유전신질환연구회 회장
- 현, 사단법인 생명잇기 총무이사
- 현, 대한이식학회 기획위원회/학술위원회 위원
- 전, 미국 하버드의대 BWH 신장내과 교환교수/이식연구센터 연구원



전문진료분야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특수클리닉
오후	외래		외래	외래	

미국에서 온 편지 #6

글 | 김지연 교수 · 정형외과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발·발목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코네티컷 주의 뉴헤이븐에 위치한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에서 연수 중입니다.

예일대학교는 1701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에서 세 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Ivy League)를 대표하는 대학 중 하나로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캠퍼스와 깊이 있는 학문적 전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와 예일대학교병원이 위치한 뉴헤이븐은 코네티컷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예일대학교와





수술 전 계획을 위한 3D 프린팅 기반 미팅



전공의들을 위한 사체 수술 실습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학생 수만으로도 뉴헤이븐 인구의 약 11%에 이르며, 교수와 직원, 연구원, 방문학자, 병원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훨씬 더 큽니다.

뉴헤이븐은 예일대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일의 건물과 시설이 도심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까지가 캠퍼스이고 어디부터가 도시 중심부인지 자연스럽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여러 도서관 중 하나인 Beinecke 희귀본 도서관에는 구텐베르크 성경과 고대 파피루스 등이 전시되어 있어 예일대학교의 역사와 상징성을 더합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을 지닌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에 저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선배님인 오일빈 교수님께서 발·발목 분과의 분과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배려로 제가 예일대학교에서 연수할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일빈 교수님께서는 임상 진료와 학문 연구 양 측면에서 깊이 있는 성과를 이루셨으며 특히 발목 인공관절 치환술과 발의 정렬을 교정하는 수술, 3D 프린팅 기반 혁신 수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꾸준히 쌓아오고 계십니다.

저는 교수님의 외래 진료와 수술실을 참관하며 실험실 연구팀 또는 3D 프린팅 연구진과의 미팅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2회 진행되는 발·발목 분과 온라인 회의와 전공의 교육에도 참석하여 임상과 연구가 통합된 교육 체계를 폭넓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매우 촘촘하게 구성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외래 진료 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수술 전에는 3D 프린팅 기반의 정교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심하고 진정성 있는 진료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학생 및 전공의 교육에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시 는 교수님의 자세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국 족부족관절 정형외과학회 (American Orthopaedic Foot & Ankle Society, AOFAS)에서 오일빈 교수님과 한국 동료들과 함께



교회 청년들과 함께 보낸 추수 감사절

교수님의 세심한 지도 아래 저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Savannah, Georgia)에서 열린 미국 족부족관절 정형외과학회(American Orthopaedic Foot & Ankle Society, AOFAS) 학술대회에서 총 세 편의 포스터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여성 정형외과 의사 수를 분석한 논문을 제출하여 현재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발 정렬 교정술 후 임상 결과 분석 연구와 3D 프린팅을 활용한 수술 기법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2세와 5세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도시 락을 준비해 한 시간 간격으로 스쿨버스에 태워 보내는 엄마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콘도’라고 불리는 이곳의 2층 주택 환경에도 적응하였고 길을 지나는 다람쥐는 이젠 일상이 되어 놀라지 않습니다. 토끼나 사슴 정도가 나타나야 비로소 눈길이 갈 만큼 이곳의 자연에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과는 달리 미국의 불합리하고 느린 공공 시스템과 높은 의료비 체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필수적이지만 운전면허 시험 예약이 한 달 이상 밀려 임시 번호판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야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또한 최근 급격히 상승한 미국 의료비로 인해 큰아이가 편도선염 후 감염을 겪었을 때 치료비 부담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급히 귀국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누리던 편리한 행정 제도와 접근성 높은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다.

저와 가족은 뉴헤이븐 한인교회에 출석하며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 기간이 마무리되어 귀국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정든 공동체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연수 기간 동안 저는 예일대학교에서의 임상·연구 경험을 통해, 미국 동부의 일상과 신앙 공동체를 통해 '의사'로서뿐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최종순 병원장님, 박무인 학장님, 정형외과 교수님들, 동료 여러분들과 환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신 이비인후과 이형신 교수님을 비롯해 멀리서 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남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곳의 청명하고 파란 하늘과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던 한인 교회의 따뜻함, 그리고 집 뒤뜰을 뛰어다니던 토끼가 문득문득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돌아가 진료·연구·교육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아이의 등교길 통학 버스
(버스 탑승 시 건너편 차로의 차들도 멈춤)



김지연 교수 | 정형외과

✚ 전문진료분야

족부(발,발목) 질환 및 외상, 당뇨발 및 창상(고압산소치료)

독자 에세이 #04

병원이 키운 태양, 빛을 꿈꾸다

글 | 견태양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생,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키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아들, 견태양입니다.

2016년 처음 급성립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후, 병원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원무과 선생님께서

“태양이는 고신대복음병원이 키운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진단 전의 저는 축구를 무척 좋아하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공 차고 웃고 떠드는,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진단 6개월 전부터 갑작스럽게 뼈마디마다 통증이 생기고,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더니 수치가 좋지 않아 고신대복음병원을 소개해 주셨고, 그렇게 제 투병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백혈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렸던 탓에 병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8병동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며 따뜻한 돌봄 속에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병원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뒤, “엄마, 이제 학교 갈래!”라며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었지만, 세 달 동안 회복 후 머리카락이 빠진 채 모자를 눌러쓰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프면 다시 입원하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축구대회에도 나가고 좋은 추억을 남긴 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고비

그 후 4년이 지나 21살 때, 골수 재발이라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치료를 시작하며 고신대 간호학과 실습생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를 받으며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이식 수술 후, 명치 통증과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간경맥폐쇄증 진단과 함께 “3일이 고비다”는 말을 듣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24시간 혈액투석을 받으며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삐삐-’거리는 기계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곤 합니다.

그 시절, 508병동의 조숙경 수간호사님, 강유진 간호사님께서 불안해하던 저를 다독이며 끝까지 응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볼 때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는 두 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혈액종양내과 이호섭 교수님, 김다정 교수님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찾아온 재발, 그리고 기다림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지만, 2021년 또다시 골수 재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식을 포기하고 표적항암제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아 조금은 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치료에 30일, 총 5차례 150일의 치료 기간은 몸과 마음 모두를 지치게 했습니다.

2022년, 버스에서 내리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검사 결과는 뇌 재발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고가의 ‘꿈의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뇌 재발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척수항암과 스테로이드, 표적항암 알약으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다시 극심한 두통으로 MRI를 찍었고 또 한 번 ‘뇌 재발’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수는 깨끗했지만,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이 걱정되어 지금은 척수항암을 하며 꿈의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찾은 평안과 소망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의 투병은 제게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시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아, 네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엄마는 이 땅에서 편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계기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믿음이 제 마음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돌아보면 10년의 투병 동안 항상 저를 위해 애써주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고, 감사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재발로 낙심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남겨두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돌봄을 다시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 있는 이유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환우 여러분,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찾아요!

우리는 분명히 모두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두가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키운 아들, 견태양 올림

독자에세이원고모집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 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운명적 끌림

글 | 김희자 수필작가



짙푸르던 앞산 자락이 수채화의 담색처럼 가을빛으로 번진다. 긴 여름 끝에 자리 잡은 가을이다. 입추, 쳐서, 백로가 지나도 무더위는 치커든 꼬리를 내리지 않더니, 갈바람 한자락 음지들을 지나자 다행이논에 금파가 일렁인다. 뜨겁고 치열한 시간 뒤에 오는 결실의 계절.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보니 염천에 풀을 뽑았던 마을 사람들의 면면이 그려진다.

연일 기온이 치닫던 여름날 새벽. 마을 앞 바다 끝에 여명이 밝아오면 음지 다행이논으로 사람들 이 모여들었다. 그들과 한마음이 되기 위해 나 또한 논두렁에 앉아 동이 터오길 기다렸다.

한 명, 두 명, 세 명……,

논두렁으로 모여든 사람은 모두 일곱 명이었다. 다행이논 보존회장님과 뜻을 함께할 언니, 오빠 들이었다.

그날 새벽녘, 나는 잠을 설치며 일어나 고양이 세수를 하고 물신과 토시, 장갑과 낫을 챙겼다. 밀 짚모자를 꾹 눌러쓰고 고요가 머무는 어둑한 골목을 빠져나가 음지로 갔다.

느릿느릿 어둠이 그치자, 동쪽 바다에서 떠오른 태양은 대지에 열기를 토하기 시작했다. 칠월 말의 아침이었지만, 보약 같은 공기는 선물이었고 이슬 머금은 풀과 벼는 싱그러웠다.

해마다 음지 다행이논엔 모를 심었다. 하나 잡초로 인해 수확이 저조했다. 모를 심으면 논 자락엔 벼 반, 풀 반이었기 때문이다. 일손이 부족하여 관리가 소홀했던 탓도 한몫했다. 모만 심는다고 알곡 을 수확하는 건 아니었다. 애정 어린 수고가 따라야 풍성한 수확이 따르는 법. 올해는 벼를 제대로 수확하기 위해 보존회에서 물 관리와 풀 뽑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한낮의 땅볕을 피하기 위해 어둠을 밀어내며 들로 나갔다. 수고비야 따랐지만 염천 더위 속에서 풀을 뽑는 일은 인내를 요구했다. 물신을 신었지만 물 고인 논바닥에 들어가 풀을 뽑기란 힘겨웠다. 뱀이라도 나타나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도 생겼지만, 호들갑스럽게 내색할 순 없었다. 내 손이 큰 도 움이야 될까 마는 보존회장님의 요청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고 싶었다.

음지에서 가장 큰 논배미. 풀 반, 벼 반인 논인데 풀을 어찌 다 뽑을까 싶어 염려했다. 핑계라도 만들어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다행이논을 보존하겠다는 사람들의 애정을 보면 그럴 순 없었다. 이 른 아침이었지만 칠월의 태양은 등을 뜨겁게 달구었다. 요령조차 없으니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래도 참으며 낫질을 했다. 저걸 언제 해치우나 싶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보태지니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이곳에서 나고 자랐으니 안 해 본 일이 없다. 풀 베고, 나무하고, 일손 돋고……. 하지만 모심은 논



에서 풀을 뽑는 건 처음이었다. 그런 일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해온 일이었다.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께서 내려다보시며 안쓰러워하진 않을까 싶었지만 무더위에도 들로 나와 일하는 사람들과 한마음이라는 생각은 확고했다.

모만 심어놓고 수확을 고대하는 건 오만에 가깝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벼는 자란다. 제때 물을 대어주어야 하고 잡초 또한 뽑아주어야 벼가 튼실하게 자라 알곡이 여무는 것이다.

뻐근한 몸, 쑤시는 허리를 추스르며 앞서가신 부모님을 생각했다. 부모님은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 가난한 시절에 나락 한 톨이라도 거두기 위해 용쓰며 사셨던 조상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수고쯤이야 감수해야지 싶었다.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눈에 엎드려 일했더니 논 자락의 끝이 보였다.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니 벼 이삭이 존재를 과시하며 웃고 있었다. 막 알곡을 맺은 벼가 몸을 키우며 가을이 오길 기다렸다. 벼가 튼실하여 풀만 제대로 뽑으면 풍년이 들 것 같았다.

몸살로 며칠을 앓았지만, 명승지인 다랭이논을 보존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 흐뭇했다. 언제까지 이 다랭이논이 지켜질까? 층층 다랭이논을 보존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숙제로 남았다. 마을을 사랑하기에 다랭이논으로 나온 사람들. 그들 또한 나처럼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으리라.

큰 배미의 풀 뽑기가 끝나고 물 한 잔으로 갈증을 해소했다. 허리를 펴고 논 자락을 쳐다보니 황금빛 가을이 눈에 선했다. 농부의 손길이 여든여덟 번 달아야 쌀 한 톨이 생긴다고 하지 않던가. 수고 없이 거두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논두렁을 걸어 나와 밀짚모자를 벗으니 후터분한 바람이 지나가며 땀을 닦아주었다. 농로에서 여행객을 만났다. 옷은 흙투성이고 붉게 상기된 얼굴, 땀으로 범벅된 내 모습을 본 여행객이 “피부가 뽀얀 걸 보니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거 같은데요.” 하며 고개를 가우뚱했다. 나는 설핏 웃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저는 다랭이마을 딸인걸요!'

지루하던 여름이 물러나고 선한 바람을 업고 가을이 왔다. 오늘처럼 들녘이 가을빛으로 물들면 여덟 해 전에 운명적 끌림으로 고향에 돌아온 때가 생각난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향에 대한 애착은 여전하고 바람처럼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고향은 본질적 자아를 찾는 여정.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무조건 본향으로 들어온 이유도, 푹푹 찌는 여름날 다랭이논으로 나가 일손을 도운 것도 자연적인 끌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끌림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운명적 끌림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





민
동
산

겨울산은 멀지 않다…
강원도 정선
민동산

글 | 노경만 산 · 여행작가

민동산 경상석



정상의 핑크하트와 빨간 우체통

민동산은 해발 1,119m로 강원도 정선군 남면에 위치한 산이다. 이름 그대로 산 전체가 둥그스름하고 민동민동한 모습으로 솟아 있다. 산나물을 많이 수확하기 위해 불을 질러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7부 능선 정도부터 정상까지 전부 억새로 뒤덮여 있어 가히 억새천국이라 부를 만하다. 그래서 가을날의 억새산행으로 유명한 산이다. 매년 9월에서 11월 즈음 정선군에서 억새꽃축제를 열기도 한다. 봄과 여름에는 초록의 억새가 용단처럼 펼쳐져 마치 알프스의 드넓은 초원을 보는 듯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길이 험하거나 길지도 않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산행을 즐기기에 좋은 산이다.

겨울산행은 그중 백미라 할 수 있다. 억새들이 쓰러져 누운 자리에 새하얀 솟이불을 덮어주듯 눈이 온 산을 덮는다. 거침없는 눈의 광야, 혹은 폭신한 눈의 대지가 된다. 더러 세찬 바람이 불 때면 하얗게 시야를 가리는 눈의 향연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러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여럿의 억새들이 나풀나풀 춤을 추기도 한다. 때로는 살풍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몽환적인 풍경이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겨울의 산이 민동산이다.

민동산 가는 길

〈제1코스(왼쪽→오른쪽). 증산초교-왼쪽(완경사)-임도-정상(3.2km), 정상-돌리네-발구덕-거북이쉼터-증산초교(3.3km)〉

민동산 안내도에는 제1코스부터 제5코스까지 다양한 루트의 산행길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행을 제1코스의 길을 통하여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산행 초입은 증산초등학교 앞이지만 열차를 타고 면 길을 달려온 산객에게는 산행의 시작점은 민동산역이 된다. 민동산역 앞 광장에 서면 정면





▲ 정상에서 뒤돌아본 오름길과 증산읍내

으로 아기자기한 증산읍내의 풍경이 보이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민동산이 보인다. 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면서 산행이 시작되고, <민동산 가는 길>이라는 간판이 붙은 육교와 약간의 오르막을 지나면 증산초교 앞 들머리에 도착한다.

작은 다리를 건너자 이정표가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완경사 길과 발구덕, 왼쪽은 급경사 길 2.6km로 적혀있다. 왼쪽으로 길을 잡아 오르막을 잠시 오르면 다시 이정표가 나타난다. 급경사 2.2km 완경사 2.8km. 폭신한 눈길을 더 여유 있게 걷고 싶다는 마음으로 왼쪽으로 난 완경사 길을 선택한다. 산모퉁이를 길게 돌아가는 비탈면 숲길로 도중에 조망은 거의 트이지 않는다. 대신 다른 길에 비하여 인적이 드물어 눈 속에 발이 푹푹 빠지며 걷는 즐거움이 있다.

오름 중에 두 개의 임도를 만난다. 2번째 임도를 가로지른 후부터는 완경사의 길이 끝나고 본격적인 오르막길이 시작된다. 그러면 시야를 가리던 나무들도 사라지고, 어느샌가 새하얀 색이 시야를 가득 눈부시게 채운다. 드문드문 쓰러진 억새 몇을 제외하고는 온통 하얀 눈의 색으로 칠해진 설국의 도화지. 마지막 오르막엔 바람이 눈가루를 흘끔거리며 아주 격한 몸짓으로 마중을 낸다.

드디어 도착한 민동산.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겨울풍경이 가득하다. 정상석 바로 아래엔 눈의 마루가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고, 포토존인 핑크색 하트 조형물과 빨간 우체통이 눈의 빛깔과 대비되어 더욱 돋보인다. 아래로는 돌리네와 발구덕이 보이고, 그 너머로는 하얀 머리띠를 두르고 도열한 겨울산들이 첨첩의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다.



▲ 민동산 오름길 중의 풍경



역 광장에서 바라본 민동산 ▲

열차 타고 떠나는 겨울여행

내려가는 길은 밭구덕 방향으로 잡는다. 정상 바로 아래의 돌리네(카르스트 지형 발달과정 초기에 나타나는 석회암의 화학적 용식작용과 표면 지형의 함몰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와지(窪地) 경관)를 지나 급경사를 미끄러지듯 내려가면 임도와 만나고, 임도를 따라 걸으면 밭구덕 마을에 도착한다. 밭구덕에서 증산초교까지 남은 거리는 약 1.52km로 별 어려움 없이 산행을 마무리 할 수 있다. 하산지점은 증산초교 앞 들머리의 이정표에서 가리키던 오른쪽 길과 만난다. 밭구덕 마을 끝 즈음에는 <겨북이쉼터>가 있어 부침개 라면 커피 막걸리 등 간단한 요깃거리와 함께 휴식을 취하다 와도 좋다.

민동산행을 계획한다면 열차 타고 떠나는 겨울여행을 함께 작성하고 출발하기를 권한다. 부산에서 강원도 정선은 멀지만 멀지 않기도 하다. 중앙선에 KTX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훨씬 가까워졌다. 멀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마음의 거리가 문제일 터, 겨울 산은 실제 거리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떠나온 김에 정선 여행을 함께 하는 계획은 어떨까. 민동산행을 마친 후 근방의 또 다른 겨울산의 대명사인 태백산 함백산을 오른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1박2일이면 충분하다.

정선 여행을 함께 계획했다면 민동산 정상에서 내려오지 말고 능선을 따라 화암약수까지 걸어간 후 정선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 중 하나일 것이다. 산을 내려왔다면, 저녁 어스름이 깔린 민동산역 플랫폼에서 태백행 열차를 타고 다시 떠나는 선택도 좋다. 그렇게 낭만적인, 열차 타고 떠나는 겨울여행을 꿈꾸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다. 지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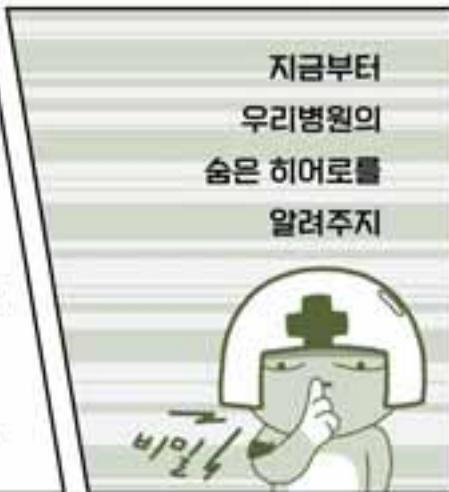


▲ 민동산 정상의 풍경



▲ 민동산 가는 길

우리부서를 소개합니다 | 다섯 번째



우리는
시설~과에요!





시설과는 시설, 전기, 기관, 영선 4개의 계로 조직돼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우리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설계는 시설과 운영과 시설공사 진행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의료 환경을 조성하거나 기존 공간을 개선하는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최상의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계는 단순히 우리 병원을 환하게 밝히는 부서가 아닙니다. 특고압 수전설비, 비상발전설비 등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의료 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우리 병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관리 및 화재안전까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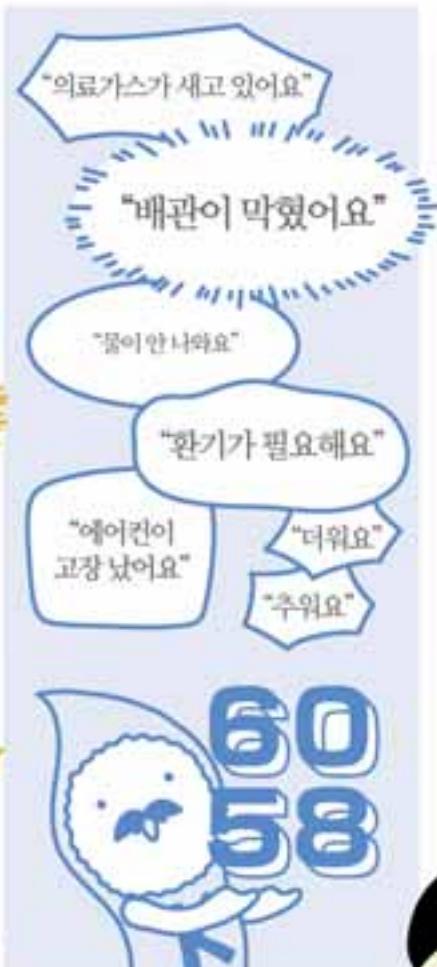


기관계는 우리 병원의 액체(물), 기체(공기질, 의료가스) 그리고 온도(냉난방)를 관리하는 예민한 부서입니다. 깨끗한 물, 따듯한 물, 냄새, 환기, 더위, 추위 등 의료 환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기계설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선계는 우리 병원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부서입니다. 주로 시설물 및 비품 파손으로 고객 및 의료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며, 낡은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앞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안 파가에 고인대학교 복음병원



미열과에서 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한마디



미열과는 오늘도 여러분의 큰박수와 응원을
기대합니다

장무상망

長母相忘

글 | 홍광표 대표실장·진료지원부



41년 2개월.

24살의 시골 청년을 복음병원으로 불러주시고, 4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84년 11월, 갓 군에서 제대한 까까머리의 경북 청송 출신 청년이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6번 버스를 타고 스쳐 지나가며 본 영도의 화려한 풍광과, 코끝을 자극하는 송도의 바다 내음에 흠뻑 취해 여러 직장을 뒤로하고 처음 들어보는 ‘복음병원’에 무작정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기독교 재단의 중·고등학교를 다녔음에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저였습니다. 일가친척 한 사람 없는 낯선 도시 부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저를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이직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러 이유로 병원을 떠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지금 돌이켜보면, 맹목적으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1984년,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절 원내를 오가며 가끔 뵈었던 키 작고 은화하신 장기려 박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지금의 통근버스 주차장 부지에는 작은 화원이 있었고, 장 박사님과 함께 월남하신 친구분이 꽃을 가꾸며 지내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세워진 이유이며 정체성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1984년 당시 병원은 지금의 1, 2동 건물만 있었고, 3동을 새로 짓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1동 건물의 핵의학과 자리에 영상의학과가 있었고, 그해 신축된 3동 지하 1층으로 이사를 하며 새 도약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 후 1995년 5동 건물이 세워지고, 2014년 지금의 6동이 완공되기까지 74년의 복음병원 역사 속에서 41년이라는 저만의 추억이 담긴, 제 분신과도 같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와도 같은 41년의 직장생활 동안, 수많은 복음의 역사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1984년 입사 당시 복음병원은 한강 이남의 암 전문병원으로 명성이 높았고, 특히 치료방사선과(현 방사선종양학과)를 비롯한 내외과 수련의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가치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며, 노사 간의 불신과 반목, 비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운영, 전문경영인의 부재로 병원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전체가 부도 위기에 놓였고,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이라는 아픈 역사를 함께 겪기도 했습니다. 수년간 월급과 상여금을 제때 받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믿음’, ‘복음’, ‘아멘’, ‘기도’라는 단어들이 제 입술에서 고백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면접 당시 고(故) 박영훈 병원장님께서 하신 유일한 질문이자 당부의 말씀은

“간호부와 싸우지 마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듯 간호부와 늘 부딪히며 지냈고, 그중 한 예쁜 간호사와는 ‘싸움’ 대신 ‘사랑’의 눈이 맞아 지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하여 또 한 아들을 낳아 3대가 함께 웃고 추억을 나누는 고마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곳, 그곳이 바로 복음병원입니다.



입사 당시 13명이던 방사선과(현 영상의학과) 직원은 지금 63명의 대가족이 되어 병원의 경영 회복과 미래 비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땀 흘릴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복음병원 영상의학과로 인도하시고, 병원과 함께 성장하게 하신 은혜.

진료지원부 대표실장이라는 보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축복.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41년 2개월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감사히 간직하며, '뼛속까지 고신인'으로서 최외곽의 고신 홍보대사로, 또 다른 의미 있는 복음가족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몸 된 기관인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74년의 긴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와 혁신적 경영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병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함께한 모든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가족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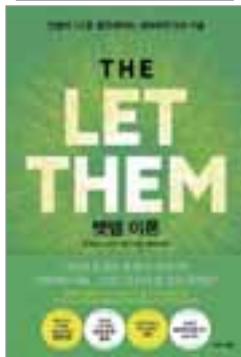
여러분과 동고동락한 41년의 긴 여정을 장무상망(長母相忘)이라는 고사성어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롬 

장무상망 長母相忘

“오랫동안 서로를 잊지 말자”는 뜻의 고사성어로, 오랜 세월 함께한 정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헤어짐 이후에도 서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소개

“그들의 감정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버려두세요.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을 하세요!”

지금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답답함이나 버거움, 또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인생을 주체적으로 이끌 힘을 타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즉 남의 기대, 남의 말, 남의 감정, 남의 행동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느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럴 때 '렛뎀'(Let Them), 즉 내버려두기의 기술을 기억한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저자 멜 로빈스는 이 책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신경 쓰느라 나를 소모하는 싸움에서 벗어나, 진정 중요한 것 – 즉 자기 자신, 자기 행복, 목표 인생 –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 끊임없는 비교를 멈추고 두려움과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법,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건강한 인간관계와 깊은 유대를 만드는 법, 중요한 목표를 자신 있게 추구하는 법,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기르는 법, 나만의 성공과 성취의 길을 찾는 법... 이 책은 저자가 SNS에 올린 짧은 영상이 수천만 뷰를 기록하고, 'Let Them' 태투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화제성을 업고 출간하게 되었다. 수백만 독자의 공감과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른 『렛뎀 이론』은, 오롯이 '나'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어진 모든 이에게 행복의 잠재력을 열어줄 가장 쉽고 심플한 도구를 선물할 것이다.

[출처: YES24]

렛뎀 이론

인생이 '나'로 충만해지는
내버려두기의 기술

멜 로빈스 저/윤효원 역 |
비즈니스북스 |
2025년 08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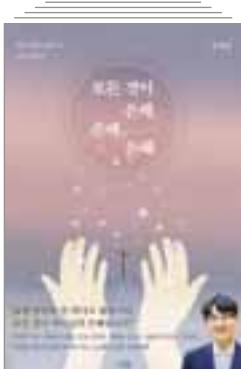
저자소개 | 멜 로빈스 Mel Robbins

〈뉴욕 타임스〉 1위 베스트셀러 작가 멜 로빈스는 마음가짐, 동기부여, 행동 변화 분야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가이다. 그녀의 책은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권이 판매되었고, 아마존의 오디오북 플랫폼인 오더블(Audible)에서 1위 타이틀을 7종이나 보유하고 있다. 또한 그녀가 출연한 영상은 수십억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인기를 증명한다.

오늘도 그녀는 전세계 교육 팟캐스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멜 로빈스 팟캐스트〉(The Mel Robbins Podcast)를 통해 194개국 청취자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는 방송을 하고 있다. 미디어 회사인 '43 스튜디오'의 CEO로서, 로빈스가 설계한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스타벅스, JP모건체이스, 링크드인, 헤드스페이스 등 유수의 기업에서 채택되었다.

복잡한 주제를 일상 속 실천하기 쉬운 행동으로 풀어내는 데 탁월한 그녀는 전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이 책에서, 수백만 독자를 열광케 한 주문이자 지금껏 가장 강력하면서도 심플하게 인생을 바꿀 도구, '렛뎀'(LET THEM)의 지혜를 들려준다. 멜 로빈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melrobbin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YES24]



책소개

반전의 찬양 사역자 손경민 목사가 삶으로 겸증받은 송스토리

이제 우리가 삶으로 부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받던 코로나 시기, 갑자기 나타난 <은혜>라는 곡은 그야말로 한국 교회를 '뒤덮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로 시작하는 이 곡은 우리가 무심히 지내온 일상이 너무도 큰 은혜였다는 것과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이라는 것을 일깨우며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었다. 예사롭지 않은 통찰력으로 ‘은혜뿐 아니라 행복’, ‘감사’, ‘충만’ 등의 정의를 새롭게 내린 찬양곡들의 작사?작곡자인 저자 손경민 목사는 ‘반전의 사역자’이다. 맑고 평온한 인상이 고생을 전혀 모를 것 같은 인상이지만 어릴 적부터 일과 배신과 재정의 연단으로 고된 40년을 살아왔으며, ‘혜성같이’ 나타난 것 같지만 무명의 찬양 사역자로 20년을 훈련받고 10년간 작곡과 레코딩으로 준비되어왔다. 무엇보다도, 소박하고 진솔한 가사와 멜로디는 결코 쉽게 쓰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겸증과 연단이라는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곡들은 그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 그 과정을 읽은 독자들은 이제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를 살아낸으로써 자신의 삶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저자가 가사를 살아낸으로써 겸증을 통과한 사건과 고백들,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이 가사로 빚어진 과정, 평범하고 작은 존재인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도해오신 그 세밀한 발걸음을 책으로 엮었다. 햇살콩과 이화하하 작가의 일러스트와 함께 1부는 송스토리와 가사, 2부는 악보로 구성되었으며, 삶의 고난과 장래의 막막함으로 지치고 두려운 이들에게 아름다운 위로와 격려의 선물이 될 것이다.

[출처: YES24]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손경민 저 | 규장 |
2024년 07월 22일

저자소개 | 손경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과 예배가 무너져갈 때,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일깨우며 지친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와 감사의 새 길을 낸 CCM <은혜>의 작사, 작곡자. 이후로도 “찬양이 너무 좋아서 감동 받고 눈물 흘리면 모두 손경민 목사님이 이은 곡”이라고 할 정도로 <행복>, <감사>, <충만>, <하나님의 부르심> 등 많은 찬양곡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화려한 기교 없이 진솔하고 담백한 그의 곡들은 쉽게 쓴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흑백한 겸증 속에서 한 줄 한 줄 정금 같은 가사로 빚어진 절절한 신앙고백이기에 그 진정성으로 부르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깊이 울린다. 이 책에서 그는 40년 고된 삶의 연단과 가사가 삶에 적용되는 겸증의 사건들, 성경 말씀이 노랫말이 되는 묵상, 20년간 바닥부터 기반을 다지며 찬양 사역자로 나아가게 하신 과정을 찬양곡 15편의 송스토리와 아름다운 일러스트에 담아 소개하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출처: YES24]



차세대 심장혈관 조영진단기기 도입

[2025.09.05.]

고신대복음병원이 심혈관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차세대 혈관 조영진단기를 도입했다. 고신대병원은 9월 5일 필립스사의 최신형 혈관조영진단기기 아주리온(Azurion 7M12)을 도입 오픈식을 개최했다. 아주리온은 혈관 및 구조적 심질환을 진단하고 중재 시술을 하는 데 쓰이는 Smart PRO 플랫폼 기반의 초정밀 최첨단 기기로, 시술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류 가능성을 줄여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복잡한 시술 환경에서도 의료진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가능케 한다. 심장내과 허정호 교수는 “방사선 피폭량을 50~85% 줄이면서도 고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 심장 혈관내의 영상 도구도 갖추면서 치료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방사선 피폭 및 합병증을 줄이는 안전 제고 효과도 있어 환자들 입장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장비”라고 강조했다.



소화기내과 김성은 교수, 부산지역 최초 POEM 라이브 시술 성공

- KSGE Days 2025에서 현장·온라인 동시 생중계

[2025.09.23.]

소화기내과 김성은 교수(건강증진센터장)가 최근 부산 최초로 'POEM(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Peroral Endoscopic Myotomy)' 라이브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라이브 시술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주관한 국제학회(KSGE Days 2025)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 참석한 국내외 소화기내과 전문의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전국의 의료진들이 시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김 교수는 시술 단계별 과정과 핵심 포인트를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성은 교수는 “POEM은 식도이완증(achalasia) 치료의 최신 내시경 치료법으로, 절개 범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환자의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이라며 “이번 라이브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국내외 의료진들과 최신 치료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신대복음병원, 부산 최초 장루 환자 맞춤형 화장실 마련

[2025.09.29.]

부산 지역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장루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화장실 시설이 들어섰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최근 소화기센터 6동 1층 다목적 화장실 내에 장루 환자 친화형 공간을 마련했다. 장루는 복부에 장을 연결해 배변을 대신하는 장치다. 장루 환자들은 파우치를 수시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외출 시 화장실 이용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기존 장애인 화장실은 주로 훨체어 접근성에 초점을 맞춘 탓에 파우치 교환이나 세정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사회적 활동과 일상 회복에도 제약이 많았다. 이번에 조성된 공간은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전용 세정대, 장루 환자 친화형 세면대, 위생용품 거치 공간 등 맞춤형 설비를 갖췄다. 독립적인 구조와 위생 중심 설계로 환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특징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번 조성을 계기로 부산 지역 장루 환자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환자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비인후갑상선두경부외과 김주연 교수, 국제수면학회(WSS) '수면장애 전문의' 자격 획득

[2025.10.02.]

이비인후과 김주연 교수가 국제수면학회(World Sleep Society)에서 주관하는 국제 수면장애 전문의(International Sleep Disorders Specialist) 자격을 획득했다. 이 자격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수면의학 전문 인증으로, 엄격한 심사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권위를 자랑한다. 김주연 교수는 고신의대에서 의학박사를 마치고 미국 스탠퍼드 의대에서 교환교수를 비롯, 다양한 국제 연구경험을 쌓았으며, 2023년에는 유럽수면학회(ESRS)의 수면의학 전문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또한 아시아 의사로는 드물게 유럽과 국제 두 기관에서 모두 인증을 받은 전문가로 명성을 얻고 있다. 김 교수는 “수면장애는 단순한 불면증을 넘어 심혈관 질환, 뇌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국제적으로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 美 마이크로소프트·UCLA 병원 방문하여 협력 탄진

- 에코델타시티 헬스클러스터 사업 글로벌 협력 가속화

[2025.10.14.]

고신대복음병원이 추석 연휴 기간 미국 시애틀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와 로스앤젤레스 UCLA 대학병원을 방문해 에코델타시티 헬스클러스터 병원 건립 사업의 국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대표단은 먼저 시애틀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찾아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AI) 기술과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론 마틴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서비스 수석매니저가 함께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고신대복음병원의 스마트헬스 비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의료데이터 분석 및 AI 진료지원 시스템 관련 공동 연구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대표단은 UCLA 헬스(UCLA Health)를 방문해 에코델타시티 헬스클러스터 병원 건립의 당위성과 사업성을 설명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부산·울산·경남권을 아우르는 스마트의료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수준의 융합의료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UCLA 헬스 관계자들은 이에 공감하며 향후 연구·교육·임상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고신대복음병원, 호스피스 주간행사 개최

- 환자의 존엄과 삶의 마무리를 함께하는 '완화의료의 가치' 되새겨

[2025.10.23.]

고신대복음병원은 10월 23일 오전 병원 중앙로비에서 '호스피스 주간행사'를 열고 환자와 가족, 교직원뿐 아니라 병원을 찾은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호스피스의 정의와 역할을 알리는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의료진과 완화의료센터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를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정원길 교수는 “질 높은 생애 말기 돌봄을 통해 환자가 주어진 삶을 끝까지 잘 살도록 돋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본질”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스피스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호스피스 주간행사는 생의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는 의료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우며, 기독병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선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다.



고신대복음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2025.10.31.]

고신대복음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간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평가 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등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해로운 입자나 가스, 담배연기 등의 흡입으로 인해 기도에 염증이 생겨 서서히 좁아지는 것을 말하며, 숨을 들이마실 공간이 부족해져 기침·기래·호흡곤란·폐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조선소 근로자들에게서 자주 발생된다. 호흡기내과 육철호 교수는 "환절기를 지나며 호흡기 질환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시기"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만큼 시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 비수도권 최초 로봇유방암수술 350례 돌파

[2025.11.03.]

고신대복음병원 유방센터가 비수도권으로는 최초로 로봇 유방암수술 300례를 돌파했다. 이는 부울경 지역을 넘어 전국 최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성과다. 지난 2023년 지방의료기관 최단기간에 로봇유방절제술 100례를 돌파했던 고신대복음병원은 세계 최대 로봇수술 장비 생산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사의 유방암 로봇수술 참관센터로 지정되어 국내 기관은 물론 해외 기관을 대상으로 참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로봇 유방수술은 적은 흉터로 암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환자 회복에서도 이득이 되는 수술로 꼽힌다. 유방외과 정성의 교수는 "고신복음병원은 새롭게 도입된 다빈치 SP 로봇 시스템을 통해 더 작은 흉터, 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적극적으로 로봇 유방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두바이에서 요르단까지, K-Health의 발걸음

- 미래연구센터 해외협력확대

[2025.11.05.]

고신대복음병원 미래의료연구센터는 부산시 RISE(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3박 5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요르단을 방문해 글로벌 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타진을 위한 실무 미팅을 가졌다. 이번 일정에는 고신대병원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와 호흡기내과 김태화 교수가 동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미래의료연구센터는 두바이에 위치한 Brain Performance Center를 찾아 병원장 Zemer Wang 박사의 안내를 받으며, 고압산소치료(Hyperbaric Oxygen Therapy, HBOT)를 활용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두바이의 의료관광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고신대병원 미래의료연구센터는 지난 2023년에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고 에코 델타시티 스마트헬스클러스터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설립되어 교수진들이 국내외 다양한 바이오 헬스 기업과 협력연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 F o c u s View ●

(주)펠릭스테크 김종오 부회장, 고신대복음병원에 1억원 기부

[2025.11.18.]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기업 (주)펠릭스테크의 김종오 부회장이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김 부회장은 이번 고신대복음병원 1억원 기부를 통해 부산지역 대표 수출기업 오너로서 지역 사회를 밝히는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1998년 울산에서 창업하여 2013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주)펠릭스테크는 조선,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건설 분야 등에 사용되는 플랜지를 비롯한 철강 단조품과 디젤 차량용 단조 엔진 피스톤과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인정받아 월드클래스 300 선정 및 대통령 포상과 7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김종오 부회장은 이날 “74년간 부산·경남 지역의 건강지킴이를 성실히 감당해온 복음병원에 작은 보탬이 되어 지역 보건의료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혈액종양내과 신성훈 교수 부산시의사회 사회봉사상 수상**

[2025.11.19.]

혈액종양내과 신성훈 교수가 부산시의사회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신 교수는 11월 15일 개최된 2025년도 부산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신 교수는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기독병원 의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환자와 동료 의료진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다. 그는 2002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사로 처음 페루 이퀴토스(Iquitos) 지역과 인연을 맺은 이후,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년 개인 휴가를 반납하며 의료봉사에 참여해 왔다. 신 교수의 오랜 헌신은 고신대복음병원이 이퀴토스 지방정부 및 지역 의과대학·병원 등과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로도 이어져 병원의 국제적 사역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신성훈 교수는 “팬데믹 이후 여러 사정으로 페루 방문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조만간 다시 의료봉사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귀한 상을 받은 만큼 더욱 성실히 진료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4회 고신 호흡기 알레르기 면역질환 심포지움’ 및 ‘2025 알레르기 질환 연수강좌’ 성료**

[2025.12.01.]

고신대복음병원이 11월 29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제4회 고신 호흡기 알레르기 면역질환 심포지움’과 ‘2025 알레르기 질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성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연구소와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주관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유튜브)으로 동시 진행됐다. 심포지움은 최근 기후 변화,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확산되는 알레르기·면역질환의 최신 연구와 진단·치료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열린 ‘2025 알레르기 질환 연수강좌’는 대한의사협회 및 내과·분과 전문의 평생교육 3평점이 인정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희규 연구소장은 “환경 변화로 알레르기·면역 질환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임상의와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알레르기·호흡기 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역량 강화와 연구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화합과 소통의 공간 '칭찬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환자와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 모습, 닳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일터를 사랑하고, 환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던 초대병원장 故 장기려 박사님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습니다! 칭찬릴레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바랍니다.

간담도췌장외과·이식외과
최영일 교수님 추천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밝히는 '친절의 아이콘'
서광일 교수님을 다음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항상 환자와 보호자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동료와 후배들에게도 친절함을 잊지 않으셔서 늘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세심한 배려는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간담췌내과과 서광일 교수님

칭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덕분에 언제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칭찬을 계기로 제 일에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자분들께도,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n

혈액종양내과 최은지 간호사님 추천

저희 진료과 특성상 주사실과 연락할 일이 많아 복잡한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 모든 진료과 환자들이 오가는 분주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친절하고 차분하게 응대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안심하고 업무를 이어갈 수 있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영선** 수선생님께 따뜻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사실 김영선 수간호사님

칭찬 릴레이에 추천해 주신 최은지 간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사실로 로테이션되어 처음에는 많이 부족함을 느꼈지만, 함께하는 주사실 간호사들과 각 진료과 외래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사실에서 제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환자분들과 직원분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주사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전기계 황정현 선생님 추천

제가 다음 칭찬의 주인공으로 의용공학과 고종호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예스'라고 답해 주시는 태도는 큰 힘이 됩니다. 밝은 웃음소리는 동료들에게 즐거움을 전하며 분위기를 활하게 만듭니다. 업무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덕분에 회사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많은 동료들이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즐겁게 일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나누고 싶습니다.



의용공학과 고종호 선생님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황정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업무는 원내 의료장비를 유지·보수하여 환자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돋는 일입니다. 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리하여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역할을 다했을 뿐인데, 친절직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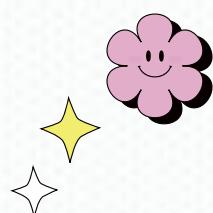
진료협력센터 주영숙 선생님 추천

언제나 "미소 ON, 짜증 OFF" 모드로 일하시는 김미향 선생님! 😊 바쁜 업무 속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척척 해결하시며, 주변 직원들에게는 긍정 에너지를 아낌없이 나눠 주십니다.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환해지고, 일터가 한결 즐거워집니다. 늘 웃음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김미향 선생님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오늘도 최고이십니다!



원무부 김미향 선생님

추천해 주신 사랑스러운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뜻밖의 칭찬이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춤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늘 함께 도와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께 더 친절한 설명과 진심을 담은 간호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웃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

2025년 6월 ~ 2025년 11월



내원객이 칭찬해주신 우리 병원 친절직원

332병동 | 342병동 | 351병동 | 361병동 | 362병동 | 503병동 | 505병동 | 507병동 | 508병동 | 509병동 | 510병동 | 512병동 | 낮병동 | 목요찬양팀 | 소화기내과 외래 | 신경과 외래 | 안과 외래 | 주사실 | 차량계

강미나 간호사(위장관외과) | 강민정 간호사(362병동) | 강서진 (원무부) | 강우진 간호사(혈액종양내과) | 강은경 간호사(내시경검사실) | 강찬미 간호사(331병동) | 강혜경 간호사(호흡기내과) | 강희경 간호사(352동) | 고경은 간호사(피부과) | 곽민채 간호사(332병동) | 구남이 간호사(낮병동) | 구미연 간호사(331병동) | 권리예 간호사(낮병동) | 권수진 간호사(351병동) | 권영혜 종양전문간호사 | 권운구 방사선사(PACS실) | 권정미 교수(영상의학과) | 김경숙 수간호사(331병동) | 김도연 교수(신경외과) | 김도윤 간호사(351병동) | 김명연 간호사(신장내과) | 김미진 간호사(511병동) | 김민경 간호사(유방외과) | 김민화 간호사(산부인과) | 김상아 간호사(고압산소치료실) | 김성은 교수(소화기내과) | 김소윤 간호사(342병동) | 김승신 간호사(351병동) | 김영나 간호사(류마티스내과) | 김영식 교수(응급외과) | 김영아 계장(건강증진센터) | 김영은 간호사(331병동) | 김유진 간호사(소화기내과) | 김유현 간호사(362병동) | 김윤정 간호사(504병동) | 김윤홍 교수(위장관외과) | 김은숙 주임(임퇴원계) | 김은숙 간호사(504병동) | 김재민 사원(보안팀) | 김재현 교수(소화기내과) | 김경남 간호사(CT진단계) | 김정임 간호사(내분비내과) | 김정하 간호사(361병동) | 김경희 간호사(352병동) | 김주현 간호사(내시경검사실) | 김지현 간호사(509병동) | 김진영 간호사(505병동) | 김창수 교수(정형외과) | 김한나 간호사(508병동) | 김현경 간호조무보호사(511병동) | 김현민 간호사(351병동) | 김현진 전공의(피부과) | 김혜경 수간호사(351병동) | 김혜리 간호사(호흡기내과) | 김호찬 교수(정신건강의학과) | 김호진 간호사(분만실) | 남예은 간호사(방사선종양학과) | 라보배 간호사(대장항문외과) | 문예원 간호사(504병동) | 박다은 간호사(내시경검사실) | 박무인 교수(소화기내과) | 박선미 간호사(소화기내과) | 박선영 수간호사(511병동) | 박선자 교수(소화기내과) | 박수연 간호사(351병동) | 박수현 간호사(진료협력센터) | 박순식 간호조무보호사(511병동) | 박신실 간호사(503병동) | 박아림 간호사(심장내과) | 박은지 간호사(509병동) | 박준우 간호사(511병동) | 박진경 간호사(507병동) | 박찬우 사원(보안팀) | 박하민 간호사(352병동) | 배서영 간호사(507병동) | 배지현 간호사(산부인과) | 백송이 간호사(신경외과) | 서경원 교수(위장관외과) | 서지환 사원(원무부) | 성미현 간호사(간담췌내과) | 손찬희 간호조무보호사(511병동) | 송수현 간호사(낮병동) | 신동훈 교수(간담췌외과) | 신성훈 교수(혈액종양내과) | 신소정 간호사(511병동) | 신온유 간호사(352병동) | 신지우 간호사(331병동) | 심효정 간호사(342병동) | 안예지 간호사(352병동) | 안종호 주임(재활치료실) | 안주언 간호사(342병동) | 양소원 간호사(주사실) | 양애리 간호사(위장관외과) | 양혜현 간호사(신경외과) | 영종현 간호사(362병동) | 예령란 수간호사(341병동) | 황해진 간호사(신경과) | 원현지 간호사(505병동) | 윤기영 교수(위장관외과) | 윤소라 간호사(방사선종양학과) | 윤소정 간호사(331병동) | 윤윤지 간호사(331병동) | 이계영 간호사(비뇨의학과) | 이도은 간호사(342병동) | 이동욱 간호조무보호사 | 이민진 간호사(방사선종양학과) | 이보민 간호사(내분비내과) | 이상 간호사(342병동) | 이선주 수간호사(362병동) | 이성진 간호사(511병동) | 이소영 간호사(511병동) | 이수정 간호사(마취통증의학과) | 이승현 교수(대장항문외과) | 이영숙 간호사(PMN) | 이은경 간호사(351병동) | 이은경 수간호사(332병동) | 이은미 교수(혈액종양내과) | 이은선 간호사(504병동) | 이은영 간호사(331병동) | 이은지 간호사(362병동) | 이재명 간호사(362병동) | 이재영 간호사(504병동) | 이정민 간호사(소화기내과) | 이정욱 교수(간담췌내과) | 이주아 간호사(352병동) | 이준호 간호사(511병동) | 이지원 간호사(암성통증센터) | 이진우 주임(보안팀) | 이진형 교수(신경과) | 이정빈 간호사(PRN) | 이하연 간호사(가정의학과) | 이혜원 간호사(362병동) | 이혜진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 이호임 간호사(342병동) | 임승희 간호사(소화기내과) | 임유경 간호사(332병동) | 임재정 간호사(361병동) | 임지수 간호사(MCU2) | 임지수 간호사(내분비내과) | 장경주 간호사(암성통증센터) | 장보영 간호사(심장혈관흉부외과) | 장정은 간호사(유방외과) | 전미연 간호사(산부인과) | 전영채 간호사(331병동) | 전주영 간호사(511병동) | 정다와 간호사(341병동) | 정만홍 교수(호흡기내과) | 정미라 책임간호사(진료협력센터) | 정성미 조혈모세포이식코디네이터 | 정수윤 간호사(331병동) | 정숙영 간호사(낮병동) | 정아름 간호사(352병동) | 정원길 교수(완화의학과) | 정지은 간호사(504병동) | 정지현 간호사(504병동) | 정한송이 간호사(심장내과) | 정현 수간호사(510병동) | 조근희 간호사(511병동) | 조동형 간호조무보호사 | 조미경 계장(응급원무계) | 조민주 간호사(낮병동) | 조수경 사원(원무부) | 조수지 간호사(안과) | 조유진 사원(보안팀) | 조은세 간호사(정형외과) | 조은아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 조하연 사원(원무부) | 조하은 간호사(504병동) | 조혜수 간호사(호흡기내과) | 조희지 간호사(유방외과) | 주영숙 주임(진료협력센터) | 주현경 간호사(352병동) | 채봉화 간호사(신경과) | 최보미 간호사(507병동) | 최수빈 간호사(361병동) | 최경희 간호사(혈액종양내과) | 최한나 간호사(비뇨의학과) | 최향숙 수간호사(508병동) | 추주희 간호사(방사선종양학과) | 하서영 간호사(508병동) | 함기주 사원(보안팀) | 홍대범 간호조무보호사 | 홍서진 (청력검사실) | 홍선희 간호사(341병동) | 홍현숙 전공의(외과) | 황지수 간호사(331병동)



최근 3개월 병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와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겨울철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심각한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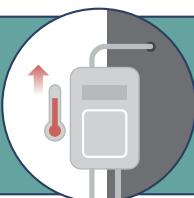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이런 분들 더욱 조심하세요!

저체온증 위험군



음식이나
보온(온,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추운 환경에서
지내는 영유아



술을 과음하거나
항우울제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

동상 위험군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한랭질환 증상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1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2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3



젖은 옷을 모두
제거하세요.

4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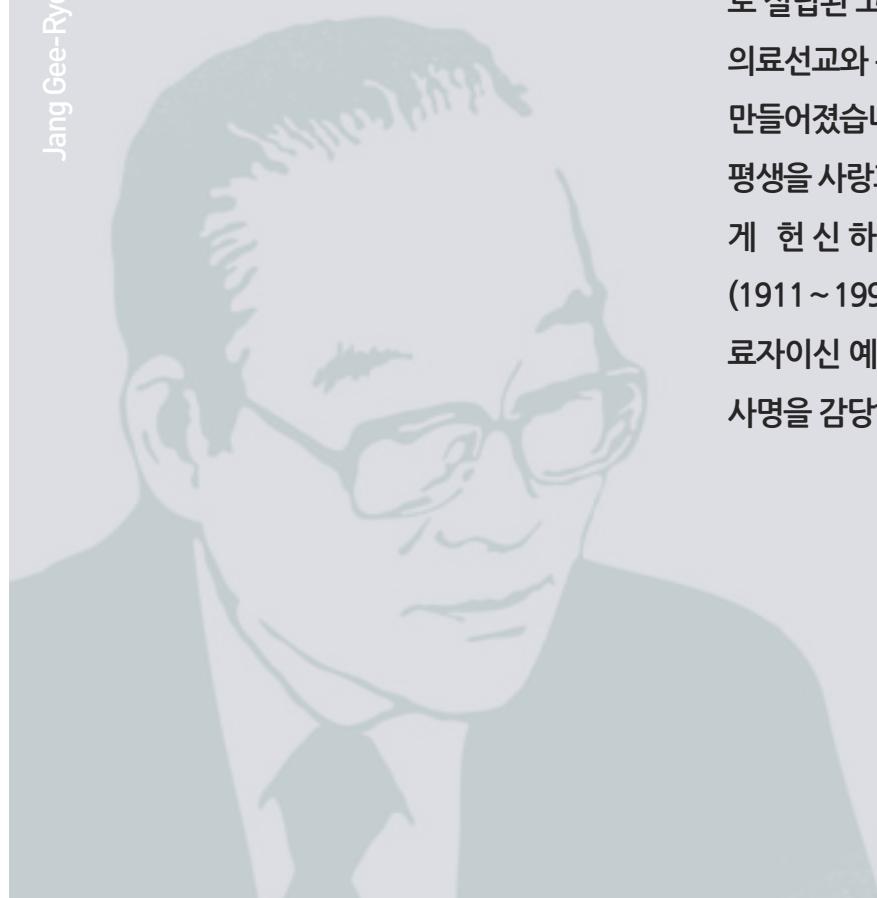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37~39°C)에 담급니다.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JMCM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의료를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부속 기관으로, 의료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생을 사랑과 봉사, 청빈한 삶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헌신하신 초대 병원장 장기려 박사님 (1911 ~ 1995)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 의사이자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의료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2025년 하반기 국내의료선교

1. 국내의료선교

2025.09.13.(토), 장산교회

▶ 참여인원: 33명, 총 진료인원: 192명



2025.10.25.(토), 거제 큰숲교회

▶ 참여인원: 31명, 총 진료인원: 50명



2.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봉사

2025.10.26.(일), 합성초등학교(김해)

2025.11.22.(토), 동광초등학교(김해)

2025.11.30.(일), 진영금병초등학교(김해)

▶ 의료봉사를 위한 약품지원, 문화사역 및 어린이사역 지원

■ 참여·협력·후원 문의: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051) 990-5775



외래진료시간표

※ 대표전화 ☎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 990-6119

※ 진료문의는 ☎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과	최종순	화	월, 목	비타민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요법, 자율신경실조증, 만성피로클리닉
	공은희	월, 수, 목	수	비만, 임상영양, 금연, 성인예방접종
	강지훈	해외연수		자율신경주사, 만성두통, 암 경험자·평생 건강 관리, 성인예방 접종, 노인의학, 근골격계 통증클리닉, 금연클리닉, 유전체 기반 비만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김미수	금	월, 화, 금	가정의학, 기능의학, 비만영양대사, 만성피로클리닉, 금연클리닉, 성인예방접종, 건강증진
	신동훈	월, 목	월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최영일	화, 금	화	간이식, 간담도, 혈관,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간담췌클리닉
	문형환	수	수, 목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허귀질환 클리닉 : 매주 수요일 오후
	조지훈	수	화, 금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간담췌내과	오영도	해외연수		간담췌외과·일반진료,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상욱	월, 수	월, 수	간, 담도, 췌장 질환(간암, 간경화증, 급, 만성 간염)
	서광일	화, 목	화, 목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우	월, 수, 금	목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당염, 담관암, 금·만성 췌장염, 췌장낭종)
감염내과	조수민	화, 목, 금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진솔	수		원내감염, 에이즈(AIDS), 여행자감염, 면역저하자 감염
	이수진	월, 목	화	원내감염, 에이즈(AIDS), 여행자감염, 면역저하자 감염
내분비내과	김부경	화	월, 수	비만, 당뇨병, 간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박성우	월, 수, 목	화	당뇨병, 간상선, 골다공증
	박태훈	월, 화, 금	목, 금	당뇨병, 간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대장항문외과	안병권	화, 목		대장암, 직장암, 대장직장클리닉
	이승현	월, 수	월, 수	대장암, 직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승훈	금	화, 금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두경부갑상선 내분비외과	문예진	목		대장암, 직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김구상	수, 금	화	로봇갑상선수술(경구, 액외), 갑상선암, 고주파열치료, 조직검사, 세침검사, 고주파열치료클리닉 ※ 금 오전 격주 진료
류마티스내과	김근태	화, 수, 금	월, 금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음파 클리닉, 허귀질환 클리닉 : 매주 금요일 오전
	김윤경	해외연수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 초음파클리닉, 허귀질환 클리닉 : 매주 금요일 오후
마취통증의학과	류시정	월, 목		통증관리
	김두식	화	화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강동희	금	금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지욱	수	수	통증관리, 중환자외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방사선종양학과	박경란	수, 목	화, 목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화, 수	월, 수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유제상	화	화	두경부암, 폐암, 흉선암, 식도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암성통증센터 진료 : 월요일, 금요일 오전
비뇨의학과	류현열	월, 수		요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종양클리닉
	최성화	화, 목	월, 목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전립선클리닉, 요실금클리닉
	김택상	수	월, 수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산부인과	강수환	화, 목	화	로봇수술, 비뇨기암, 결석
	이태화	월, 수, 목	월	부인암, 부인종양, 자궁근증,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오영림	월, 목	월	고위험 임신, 조산, 모체 태아 외학, 일반 부인과 진료
	윤항구	화, 금		모제태아외학, 고위험 임신, 조산, 산부인과 질환 로봇 수술센터
성형외과	강태경	수, 목	목	부인종양, 부인과 내분비학(월경이상, 폐경, 다낭성 난소증후군), 내시경수술
	김은택	화, 금	수	부인질환(심부자궁내막증, 자궁근증, 난소종양, 자궁탈출증), 부인종양, 부인암, 부인암 유전상담, 폐경, 로봇수술, 내시경수술(부인암 분과전문의)
	박진형	월	월, 수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소아청소년과	이형석	수, 금	수	피부암, 유방재건, 두경부재건, 눈성형, 소아성형, 당뇨발, 육창
	김윤수	화	화, 목	유방재건 및 유방성형, 체형성형, 미용/흉터 성형, 피부종양, 안면골절
	홍유라	목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이정현	월, 수, 목		성장클리닉(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내사질환(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칼슘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소화기내과	연규민	화, 수	금	소아신경질환(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섬김	월, 목, 금	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빙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최소운	해외연수		소아소화기·영양분과(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췌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로hn병, 궤양성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내시경)
신경과	박선자	월, 수	월, 화	용증(선증)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소화기암, 친환경형화자 학부모교, 카밀로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위 및 대장의 삐파하병(내시경유파), 위장관 밀초립프증, 기능성소화불량, 과민성증후군, 소화성 궤양
	박무인	월, 목, 금	수	심경증, 이질적자(아동이동증), 내시경 균열증(POEM, POET), 위식도역류질환, 기능성소화불량증, 배변, 고장(장증후군), 소화성궤양, 헬리코박터 및 생부수화기질환, 소화기암, 친환경성화자(내시경) 위, 대장, 캡슐, 소장, 음증(선증),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문원	화, 목	화, 목	크론병, 궤양성성대장염, 베체트병
	김성은	화	수, 목	위, 식도, 심지이상의 용증(선증),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식도이동불능증, 내시경 균열개술(POEM), 위식도역류질환,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관련질환(위밀트립증포함), 위루술
	김재현	금	월, 수	대장암 클리닉,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용증(선증),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대장립질제술위주), 유전성 대장립질증후군, 대변이식치료, 기타 소화기질환 치료 내시경(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킬라지아(POEM), 위암, 식도암, 용증, 기능성 소화기질환)
신경외과	정경원	화, 수, 금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일반 소화기 진료
	이명훈	월, 목, 금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소화성궤양, 용증
	최윤정	수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소화성궤양, 용증
신경과	손민영	목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소화성궤양, 용증
	유봉구	월, 화, 수	화	뇌졸중 치매, 두통, 뇌졸중 치매 클리닉
	김명국	휴진(~2026.1.29)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신경외과	김민정	금	금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파킨슨병클리닉
	이진형	화, 금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치료
	허소영			근전도검사
신경외과	전병준	목	월, 수	다발성경화증, 신신경학수염, 말초신경경화, 근육병, 허귀질환 클리닉 : 매주 목요일 오전
	나주영	월	수, 목	두통, 어지럼, 치매, 어지럼 클리닉 : 매주 수요일 오후, 두통 클리닉 : 매주 목요일 오후
신경외과	조혁래	월, 수	월	뇌종양, 두개저종양,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해외연수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김도연	월	월, 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용우	수, 금	수, 금	뇌혈관질환 뇌수두증, 뇌종양, 뇌혈관증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이학수	화, 목	화, 목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혈관내 수술, 급성 뇌경색 치료, 자발성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 신경계 중증자치료



외래진료시간표

2025년 12월 기준

※ 대표전화 ☎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 990-6119

※ 진료문의는 ☎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신장내과	임학	월, 수, 목	수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토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형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연순	화, 목	화, 목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증후군,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매주 목요일 오후
	신호식	월, 수	월, 수, 목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콩팥병, 노인성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매주 금요일 오전
	김예나	화, 금	월, 화	만성콩팥질환, 급성콩팥신증후군,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심장내과	양우식	금	금	신장질환
	차태준	월, 화, 금	월, 화, 목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정호	월, 수, 목	화	심혈관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혈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흉통클리닉, 고혈압클리닉
	임성일	월, 수, 목	수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심장혈관흉부외과	김봉준	금	월, 화, 목	심부전, 폐고혈압
	김수진	화, 목	수	순환기,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여성심장
	박성달	월, 목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증양
	김종인	화	월, 화	일반흉부, 폐기종, 기흉, 폐암, 식도암, 종격동증양, 다한증, 흉부외상, 하지정맥류
안과	조성호	수	화, 수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이해영	월, 목	월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정맥질환, 흉부외상, 성인심장질환, 체외막산소화장치, 하지정맥류
	고택용	금	수, 목	폐암, 종격동증양, 흉강경 및 로봇수술
	이상준	화, 목	월	망막(황반변성, 막막비리, 막막전막, 황반원공, 당뇨망막증), 포도막(황체섬모체염, 포도막염), 유리체(유리체출혈, 유리체 혼탁), 백내장, 인공수정체탈구
알레르기내과	이승우	월, 수	목	노내강(시신경유두부종, 시신경유두암), 백내장
	김창주	금	화, 수	소아안과, 사시, 복시, 근시, 성형안과, 신경안과(시신경염, 시신경병증) 안종양, 안외상, 눈물길
	김신동	금		망막, 일반안과질환
	이승하	수, 목, 금		망막, 일반안과질환, 신생아망막
암성통증센터	김희규	월, 수, 목	월, 목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악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기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면역결핍질환
	최길순	화, 금	화, 금	천식 및 비염, 아토피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악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오지현	수, 금	화, 수	만성기침, 천식 및 비염, 아토피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악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등
	유제상	월, 금		방사선치료(두경부암, 폐암, 흉선암, 식도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증양), 은열치료, 고압산소치료, 암성통증조절
완화의학과	김미수		수	고용량 비타민치료, 면역치료, 암성통증조절
	정원길	월, 화, 수, 목		호스피스 완화의료
위장관외과	공섬김		월	소아혈액증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반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윤기영	월, 목	월	위장,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서경원	화, 수	화	비만대사수술, 위암수술, 탈장수술, 외과대사영양학
	김기현	해외연수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비만대사수술
유방외과	김윤홍	금	수, 목, 금	복강경, 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비만대사수술
	정성의	화, 목	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김구상	월	월, 목	로봇유방암수술, 유전성 유방암, 입체정위생검, 유방암 경험자 클리닉
	최진혁	수, 금	수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입체정위생검, 유방양성질환
응급외과	정주원		화	응급외과
	김영식	수		응급수술
이비인후감상선 두경부외과	이강대	월, 목, 금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모니터링 수술
	권재환	목, 금	화	종이수술, 난청, 이명, 어지럼증, 귀의 염증, 삼출증(청이염, 고막질환), 소아 귀 질환, 인공외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귓불 켈리드, 종이 진주증 비과: 촉농증, 비성형, 안면제건, 안아골절, 비골골절, 코피, 신체 특별 진찰
	이형신	월, 수	화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팔러
	김주연	화	월, 목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 무호흡증, 코피, 코성형 클리닉
재활의학과	김영준	화	수, 금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미름, 임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서운수	금	금	이비인후 감상선 두경부외과 일반질환
	신영주	목	월, 수, 목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암재활
	전공의	금		근골격계질환
정신건강의학과	김우찬	목	월, 수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낮병동(조현병, 기분장애), 재발방지클리닉
	이상신	월, 수, 금		지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암환자 정신건강 클리닉
	김현석	화, 목	화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ADHD, 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전공의	수, 금	수, 금	정신건강의학과 일반진료
정형외과	권영호		수	수부, 주관절, 흉과출구증후군
	정소학	화, 목	월, 수	근골격계증양, 고관절, 대퇴부
	김창수	월, 수, 목	월, 수, 목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증양, 척추증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지연	해외연수		족부(발) 질환 및 외상, 당뇨발 및 창상(고압산소치료)
직업환경의학과	심대무	월~금	화	척추질환, 척추 비수술적 치료
	김정원		월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화, 금	화, 금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월, 목	월, 목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치과	오현철	월	화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김희진	목	월, 화, 목	치과보존과
	서고은	화, 수, 금	금	구강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 감염, 외상, 임플란트, 매복치, 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은숙	화, 수, 금	화	치과 보철과 일반질환
피부과	김민경	월, 목	수, 목	치주과 일반진료
	우혜문	월	월, 수, 금	보존과 일반질환(충치치료, 근관치료, 치아 외상, 치아 재식, 치아 이식, 미세현미경 치료, 암환자 치과치료, 전신질환자 치과치료 및 기타 치과 질환)
	장민수	월, 수	월, 수	어드름/주사, 건선, 손발톱색소질환
	박종빈	화, 목	화, 목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핵외과	서기석	화, 금	금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성설화	연수		피부기여증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피부질환, 백반증, 건선
	김희영		월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김법수		수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혈액종양내과	신성훈	월, 수, 금	월, 수, 목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간암도암, 유방암, 비뇨기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호섭	화, 수, 목	월, 화	다발골수증, 암성림프종, 성상액혈증, 만성액혈증,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월, 수, 목	목	위암, 대장암, 유방암, 낭담암, 퉨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다정	해외연수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호흡기내과	정만홍	금	화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 폐질환
	장태원	월, 수, 목	수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 폐질환
	옥철호	화	수, 목, 금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태화	화		중증 호흡기 감염질환, 호흡기부전, 중환자 호흡재활
김태윤	김태윤	월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의사라 부릅니다.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라 부릅니다.
의로운 의사라 부릅니다.
바보의사라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살려 헌신하길 원하는
백년의 약속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오늘도
전인치유를 실천 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발전기금 바로가기